‘대화의 문’ 열었지만 소통까진 ‘머나먼 문’

李대통령 - 孫대표 회담 뭘 남겼나

이명박 대통령과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27일 오전 영수회담을 위해 청와대에서 만난 뒤 조찬회담장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생은 생각차, 고착된 대립은 탈피

野 “국민 실망만 시켰다” 한계 확인

기대를 모았던 이명박 대통령과 민주당 손학규 대표의 27일 청와대 ‘민생 회담’은 뚜렷한 성과를 도출하지 못하면서 의미가 반감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대학 등록금 경감 방안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문제 등 민감한 현안에서 양측이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면서 합의를 끌어내지 못한 것이 결정적이라는 지적이다.

두 가지 의제에서 ‘대승적 해법’이 도출될 경우 이 대통령은 임기 후반기 국정 장악력을 공고히 하고 손 대표도 차기 대선 주자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됐지만 기본적인 시각 차를 극복하지 못했다.

추경 편성 문제에 대해서도 찬반이 극명히 드러났고 저축은행 사태 해결 방안은 재발 방지책 강구와 검찰 수사 및 국정조사 협조라는 ‘모범 답안’이 제시됐다.

회담의 ‘6대 의제’ 가운데 실질적 합의는 가계 부채 경감을 위해 정부가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민생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공 부문 일자리 창출 예산을 최대한 반영한다는 대목 정도였다.

다만 이번 회담이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 간의 회동으로는 거의 3년 만에 열린 것이고 그 동안 여야 관계가 냉랭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전혀 소득이 없었던 것만은 아니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통령과 손 대표가 대화의 문을 열었다는 것만으로도 정치적 의미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대학등록금 인하나 한미 FTA 비준 문제 등은 양측 모두가 양보하는 것이 큰 부담인 만큼 일단 대화를 시작했다는 데에 의미를 둬야 한다는 분석이다.

이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고착된 대립을 탈피해 대화 정치가 시작됐고 향후 난제들에 대해 언제든 만나 논의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데 큰 의미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용섭 민주당 대변인도 “이번 회담은 민생 현장의 목소리와 서민의 애환을 청와대에 전하는 게 중요했다”며 “과거 영수회담처럼 합의 숫자에 초점을 두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거의 3년 만에 성사된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의 회담이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두 사람 모두 ‘정치력 부재’라는 비판에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은 “손 대표의 어설픈 협상 행보가 국민들을 더욱 실망시켰다는 지적을, 민주당은 뼈아프게 새겨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진보신당 강상구 대변인도 “이 대통령 영수회담을 지지율 제고의 수단으로 이용한 느낌이고, 손학규 대표는 이런 대통령의 얼굴만 세워준 꼴이 됐다”고 질타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가계부채·저축은·일자리 창출엔 공감

민생 분야별 논의 내용

이명박 대통령과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27일 청와대에서 조찬을 겸한 회담을 열고 ‘6대 민생’ 의제를 논의했다.

이날 이 대통령과 손 대표는 가계부채 대책 마련과 저축은행 부실 재발방지, 일자리 창출 등에 대해서는 인식을 함께했으나 한·미 FTA 비준안 처리와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다.

◇**대학 등록금 인하**=이 대통령과 손 대표는 등록금 인하와 대학 구조조정 병행 추진에 공감했으며, 등록금 문제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방안과 속도, 범위에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앞으로 등록금과 구조조정 문제, 재정 지원, 금리 조정 등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정 채널이 가동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한·미 FTA 이견**=한·미 FTA 비준에 대해 두 사람은 기존의 입장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국가의 장래를 위해 비준안 처리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손 대표는 ‘재재협상’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저축은행 부실 사태**=이 대통령과 손 대표는 저축은행 부실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부산저축은행 부실로 인해 발생한 피해자를 위한 구체적인 구제 대책을 내놓진 못했다. 다만 부산저축은행 등 저축은행 부실 사태에 대한 검찰 수사와 국회 국정조사에서 원인 규명과 책임 소재를 성역 없이 철저히 밝히기로 했고, 정부와 여야는 최대한 협조한다는데 합의했다.

◇**일자리 창출 노력**=일자리 창출이 최고의 복지이며 민생대책이라는 데 인식을 함께 했다. 이를 위해 내년 예산에 일자리 관련 예산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여·야·정이 힘을 모으기로 했으며, 특히 정규직-비정규직 간 임금, 복지 등 각종 격차를 줄이는 데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키로 했다.

◇**가계부채 종합대책 마련**= 이 대통령과 손 대표는 800조원대로 사상 최고인 가계부채를 해결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가계부채 문제가 향후 경제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었고, 이에 따라 정부가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최대한 빨리 마련하도록 합의했다.

◇**추경 편성 ‘이견’**= 민주당이 요구한 추경 편성은 거부됐다. 손 대표는 하반기 등록금 부담 경감과 구제역 피해복구, 일자리 창출, 재난 대책 등을 위해 추경 편성을 요청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국가재정법상 추경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남북관계 등 기타 안건**= ‘6대 민생’ 이외의 기타 안건은 회담 시간 부족으로 충분히 논의되지 못하고 손 대표가 건의하는 형식으로 다뤄졌다.

손 대표는 정부의 남북정상회담 추진에 대해 “잘한 일”이라는 입장을 나타냈으며 법인세 감세 철회와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요구했다. KBS수신료 인상안에 대해서는 “서두를 일이 아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민선 5기 1년, 시·도지사 공약추진 점검해보니

광주 일자리 창출 지원시스템 구축

전남 전주~광양 고속도 건설 완료

광주 100대 과제 중 83개·전남 80대 과제 중 79건 추진중

광주시는 27일 “민선 5기 1년 동안 강운태 광주시장이 내건 민선 5기 100대 과제 중 광주공동체 원탁회의 구성·운영 등 7개 과제를 완료하고 83개를 추진중이다”고 밝혔다.

다른 과제와 중복돼 제외된 3개 과제 외에 97개 과제 중 현재까지 추진실적이 부진한 공약은 ▲세계한상대회 유치 및 인적 네트워크 구축 ▲코리안 디아스포라 기념관 건립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재논의 ▲도시철도 1호선 운영적자 최소화 ▲광주공항 국제선 재취항 ▲제2순환도로 보조금 지급 경감 및 개선 등인 것으로 분석됐다.

또 ▲광주문화재단 및 여성재단 설립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 ▲빛고을 중소기업 지원단설치 운영 등은 계속 추진중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전문가, 시민단체 관계자, 교수 등 외부인사로 구성된 공약이행 평가단의 평가를 거쳐 현재 부진 과제는 원인을 분석해 대안을 제시하고, 추진 과제의 경우 완료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도 이날 상반기 공약사항 보고회를 열고 공약 진척률이 39.3%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취임 1년을 앞두고 박준영 전남도지사가 취임 당시 지역민들에게 약속했던 공약의 진행 상황을 점검한 자리로, 총 80개의 공약사업 중 79건이 추진 중이며 53건의 사업에 대해서는 임기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미 완료된 사업은 전주~광양간 고속도로 건설 사업으로 지난 4월 29일 준공됐다.

나머지 27건의 사업은 계속 추진 사업으로 분류돼 임기 중에는 완료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됐다.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건설 및 무안 한중국제산단 개발, 모터스포츠산업클러스터 기반 구축 사업과 우주로켓개발센터 개발사업 등은 임기 이후에도 계속 추진돼야할, 이른바 ‘장기 사업’으로 분류됐다.

반면, 무농약 이상 친환경 농산물 인증 면적 45% 달성 사업은 2014년까지 실현 가능한 것으로 전망됐다.

주요 사업 진행 상황에 대한 시각차도 드러났다. 수백억원의 적자를 낼 것으로 전망되면서 일각에서 존폐가 거론되고 있는 F1 대회의 경우 전남도는 2016년까지 대회의 완벽한 성공 개최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고 탄소배출권 거래소 유치 사업은 2015년으로 연기됐는데도 벌써 40% 추진됐다고 밝혀 ‘부풀리기’라는 지적도 나왔다.

/윤현석·김지을 기자 chadol@

孫대표, 외교안보 논의 日 방문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해외로 눈을 돌리며 야권의 대표적 대선주자로서 이미지 굳히기에 나섰다.

손 대표는 27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과의 조찬회동을 가진 직후 일본행 비행기에 몸을 싣고 지난해 10월 취임 후 첫 해외 방문길에 올랐다.

2박3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한 손 대표는 28일 간 나오토 일본 총리를 만나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지원은 물론 한반도 정세를 둘러싼 외교, 안보 현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방일 일정에는 총 29개 언론사, 38명의 기자가 동행 취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손 대표는 또 다음 달 4~7일에는 시진핑(習近平) 국가 부주석 초청으로 중국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나아가 연내 미국을 방문하기 위해 일정을 조정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낙일만평

- 김종두

지독한 먹구름이 또…

세기보청기

세기의 무대는 세계입니다!

탁월하지 않으면 세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세기보청기는 누구도 따라 올 수 없는 완벽한 기술력을 모두 갖추었습니다.
이제 세기보청기가 여러분을 행복 속으로 모시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표보청기-
세기스타·세기보청기
www.segistar.co.kr

전국 점망
서울 삼일로점(탑골공원 삼일로 입구):02)2276-0587~9 강남점(강남고속터미널 앞):02)3477-5110 종로2가점(금강제화 옆):02)733-0220 송파점(석촌역 2번 출구):02)419-3388 경기 인천점(구.시민회관 앞):032)421-2288 부평점(부평역앞):032)517-5110 수원점(남문 옆):031)246-5110 의정부점(포천로터리 흥국생명 앞):031)821-6655 안양점(벽산쇼핑2001 아울렛 앞):031)469-0110~1 평택점(평택역 앞):031)658-5110 용인점(용인네거리):031)336-1090 오산점(국민은행 2층):031)378-4183 부천점(GS백화점 옆):032)329-4400 부산 서면B점(서면로터리):051)818-8800 서면A점 818-0016 남포동점(부영극장 앞):051)256-7200 울산 울산점(공업탑로터리):052)268-2283 경남 마산점(마산역 앞):055)297-6060 진주점(구 동명극장 앞):055)745-9870 창원점(한마음병원 뒤):055)284-5055 대구 동인점(동인네거리):053)425-4440 삼덕점(삼덕네거리):053)426-1511 남일동점(아카데미극장 옆):053)425-7575 경북 포항점(육거리):054)244-5110 안동점(구.안동농고네거리):054)859-2248 광주 광주점(구.도청 옆):062)225-5110 광주점(백운광장):062)651-4477 전남 순천점(중앙사거리 지하상가입구):061)752-8845 전북 전주점(진북로터리):063)252-5728 군산점(구.시청정문 옆):063)446-0198 익산점(북부시장네거리):063)838-5600 남원점(시장네거리):063)632-2626 대전 대전점(도청 앞):042)254-5110 대전점(중촌로터리):042)222-3388 대전점(대전역 앞):042)255-4900 충남 천안점(천안역 앞):041)553-2888 공주점(공주큰사거리):041)852-5110 충북 청주점(현.까르프 구.속리산고속 맞은편):043)222-1177~8 충주점(삼원로터리):043)852-1414 강원 강릉점(옥천오거리):033)647-0588 춘천점(팔호광장 앞):033)253-5110 제주 제주점(광양로터리):064)753-4358

세계적 권위의 인증! FDA허가!
미국 식품의약국 FDA허가 인증 | 국제품질 ISO 9001인증 | 국제의료기품질 ISO 13485인증 | 유럽공동체 CE마크 인증 | 의료용구 제조업체

상담전화
1588-8499/080-222-0100
세기보청기 대리점 사업본부 문의전화 02)538-9388

■ 광주 구)도청옆 세기보청기 문의전화 (062)225-5110
■ 광주 백운광장 세기보청기 문의전화 (062)651-4477
■ 순천점 세기보청기 문의전화 (061)752-8845